

金台俊의 문학사 인식 방법 연구

— 김태준의 문학사 서술방법 연구(1) —

양 영 길 *

목 차

1. 서 론
2. 문학사의 인식 방법
 - 1) 민족 사관에 의한 문학사의 인식
 - 2) 민중 중심의 문학사 인식
 - 3) 사회경제 사학을 바탕으로 한 문학사 인식
3. 결 론

1. 서 론

일제 강점기에서는 역사 서술을 비롯한 문학사 서술에 많은 제약이 뒤따랐다. 그들은 감시와 검열로 식민사관에 대응하려는 우리 민족 학자들을 탄압하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正體性)을 훼손·변질시키면서 우리 민족사를 유린하였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 극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 몇몇 문학사서(1)가 저술된 것은 우

* 제주대 강사.

- 1) 안자산, 『조선문학사』(1922)
- 김태준, 『조선소설사』(1930~1931)
- 김태준, 『조선한문학사』(1931)
- 김재철, 『조선연극사』(1933)
- 조운제, 『조선시가사강』(1937)
- 김태준, 『증보 조선소설사』(1939)
- 임화, 『개설 신문학사』(1939~1941)

리 문학사 서술사상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에서는 金台俊²⁾의 저술인 『조선소설사』를 바탕으로 '문학사 인식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김태준은 1930. 10. 31~1931. 2. 14까지 『조선소설사』를 동아일보에 연재하였으며, 1933에 이를 단행본으로 출간하였다. 또 이 단행본은 1935~6년에 쓴 『조선소설발달사』 등을 비롯한 여러 연구물의 내용을 보태고, 일제의 간섭에 작용하는 부분들을 삭제하여 1939년에 『증보 조선소설사』로 중간하였다.³⁾ 이 저서는 설화시대의 소설에서부터 1931년에 이르기까지의 작가와 작품을 대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1988년 7월 월북 문인들의 광복 이전 작품에 대한 해금조치가 있기 이전까지는 김태준의 저술에 대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리고 해금조치가 이루어진 뒤에 그 동안 공백으로 남아 있던 많은 부분들이 채워지고 있으면서도 문학사 서술에 대한 논의는 작품론이나 작가론·비평론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⁴⁾

그동안 김태준에 대하여 관심⁵⁾을 기울여 온 박희병 교수는 “天台山人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천태산인에 대한 정당한 평가 없이는 (...) 일제시대의 국문학 연구사가 제대로 복원될 수 없다”고 쓰고 있다.⁶⁾ 또 “좌파 지식인이었다고 하여 무조건 매도하거나 그 연구성과를 자세히 검토해 보지도 않은 채 폄하해 버린 이전의 냉전적 사고방식을 지양하고 그 연구사적 위상을 온당하게 평가하면서 연구성과의 시비득실을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살필 필요가 있

2) (1905~1949), 호는 天台山人, 경성제대 3회 졸업(중문과), 1930~31년 『조선소설사』 집필, 1939년 경성제대 강사, 1944년 출옥 후 연안행, 1945년 광복후 북쪽을 거쳐 남쪽에 올, 1946년 서울대 교수, 1949년 빨치산 일원으로 체포되어 처형됨.

3) 이 글에서는 초판을 우선하여 사용하면서 그 차이점은 각주에서 밝히고자 한다.

4) 김병택, 『한국현대시인론』, 국학자료원, 1995. pp.93~94에 의하면 “지금까지 켜어진 문학사는 결코 온전한 문학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없었다”고 하면서 해금 조치 이후에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독자들이 지나는 문학적 호기심에 편승하여 작가의 역량을 터무니없이 높게 평가하거나, 작가의 작품세계가 연구자의 비실증적인 판단에 따라 심하게 왜곡되거나, 작가의 역량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5) 박희병, 「천태산인의 국문학연구」, 민족문학사연구소 편, 『민족문학사연구』3~4호, 1993. 임영태, 「혁명적 지식인」, 『사회와 사상』, 1988. 9.

6) 박희병의 위의 글, p.249.

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조선소설사』에 나타난 문학사의 인식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그 동안 지나치게 편향된 시각에서 문학사를 인식하고 서술해 온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의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다.

2. 문학사의 인식 방법

문학사의 서술은 서술 대상을 어떠한 태도와 관점에서 서술하느냐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서술자가 인식하고 있는 문학의 존재 방식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태준은 문학사를 “방법으로서의 문학사”,⁸⁾ 즉 문학사를 인식의 결과로 보는 입장으로 주관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경우 문학사는 ‘문학의 역사’가 아니라 ‘문학 역사의 과학’이 되는 것이다. 즉, “문학적 진리는 인식 주체의 관점이나 방법에 의해서 발견되어지는 것”⁹⁾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이나 방법의 문제는 서술자의 사관¹⁰⁾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의 민족 사관은 세 갈래로 나뉘어 전개되었다.¹¹⁾ 이들 세 갈래의 민족의식은 일제 강점 당시 각기 다른 양상의 대처에서 벗어나 3·1독립운동을 계기로 큰 흐름 위에서 만나게 되었다. 이러한 만남은 민족적 역량과 힘이 대다수의 민중에게로 옮겨져 민족적 자각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중심부에서 주변부로의 민족적 역량의 이동은 정치·경제·문화 모든 면에서 이루어져 민중의 존재가 민족주의 사학의 중심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민족적 역량과 힘이 민중에게 옮겨지는 것을 두려워 한 일제는 우리의

7) 위의 글, pp.279~280.

8) 임성운, 『문학사 기술 방법론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0. p.28.

9) 위의 논문, p.38.

10) 차하순 편, 『사관이란 무엇인가』, 청람, 1980, p.3에 의하면 “사관이란 역사 인식, 또는 역사 철학이나 역사 해석의 태도 등을 모두 내포하는 매우 신중성 있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또 “어떤 때는 한 개인이 가지는 관점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하나의 집단 내지 하나의 사회가 지니는 가치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11) 첫째는 최사위정론을 내세우는 양반과 유생들의 민족의식, 둘째로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개화사상을 내세우는 진보적인 민족의식, 셋째로 동학을 비롯한 민중 중심의 민족의식이 그것이다.

민족 정체성을 왜곡시키기에 총력을 기울였다.¹²⁾ 이들과 맞서는 우리 민족주의 사학은 한국사의 보급이 국권 회복과 독립 투쟁의 중요 방편임을 인식하고 역사의 식과 방법을 확대 심화시키는 민족사 연구에 정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1920년대에 접어들어 사상적 측면의 민족주의 사학과 사회경제 사학, 그리고 방법적 측면의 실증주의 사학으로 분화되어 1940년대까지 전개되었다. 이들은 모두 일제와 그 주변 관학자들의 식민사관에 대항하여 국가와 민족을 지켜려는 애국·계몽 사관에서 출발하고 있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김태준의 『조선소설사』도 이러한 애국·계몽 사관에 뿌리를 두고, 고전적 마르크스 철학¹³⁾의 하나인 사회적 행위나 제도의 토대를 경제로 보는 경제결정론, 역사의 추진력으로서 사회적 집단의 지속적인 투쟁을 강조하는 계급투쟁론 등에 바탕을 두고 문학사를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학사의 인식은 단순한 역사 철학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변질·왜곡시키고 있는 식민사관에 대항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문제와 깊이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소설사』를 사회경제 사학으로만 재단하려는 것은, 당시의 역사 인식에 대한 이해의 넓이와 깊이를 좁고 알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문학사의 자주적 인식과 관련하여 '민족 사관에 의한 문학사 인식', 그리고 문학사의 주체와 관련하여 '민중 중심의 문학사 인식', 또 문학사를 이루고 있는 사회상과 관련하여 '사회경제 사학을 중심으로 한 문학사 인식'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민족 사관에 의한 문학사의 인식

민족 사관¹⁴⁾이란 '민족을 역사의 주체로 하여 역사 가치관을 민족화·민중화하는 것으로 전민족적인 가치나 그 발전에 두자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또 "민족

12) 이것이 바로 1922년 12월 4일에 공포한 훈령 제64호 <조선사편수회규정>이다. 그들은 이 훈령에 의해서 조선총독부 정무통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선사 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1927년 『조선사대계』(5권)를, 또 1932년부터는 『조선사』(37권)를 간행하여 본연의 한국사서에 대하여 절멸책을 강구하고, 滿鮮史觀, 日鮮同祖論, 중세·봉건 부재론, 남선경영설, 반도적 성격 그리고 한국사의 停滯性, 黨派性, 事大性을 중심으로 조선의 침략과 지배를 정당화하면서 한국사를 유린하였다.

13) 유진원 외, 『마르크스주의』(김병익 외 옮김), 고려원, 1991. p. i)

14) 이만열, 『한국근대 역사학의 이해』, 문학과지성사, 1989, p.65

문화를 재인식하고,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민족 문화의 발전 원리를 제시할 뿐 아니라, 한국사가 세계사와 그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 자세를 갖게 할 것”이라고 부연할 수 있다. 이를 문학사와 관련지어 설명한다면, 우리의 문학사에 대하여 그 주체를 민족·민중으로 하고 그 인식을 자주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민족문학을 자주적 문학사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태준이 『조선소설사』를 쓰게 된 동기를 박희병 교수는 “일본인 학자가 아닌 조선인 학자에 의해 우리 것이 정리되어야 한다는 일념에서였다”¹⁵⁾라고 쓰고 있다. 실재로 김태준은 이 저술에서 ‘제7편 문예운동 후 사십 년간의 소설관’에서 ‘계몽운동시대—발아기—계급문학 여명기—1923년 이후 지금까지의 문단 추세’¹⁶⁾의 4기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문예운동은 통털어 문예의 성숙기에 대한 여명운동이었다. 여명 전의 암야로부터 旭日이 찬란한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다. 비록 위약하고 침체한 것 같지만 준비, 발아, 성장의 과정을 밟아 장차 도달할 성숙기를 향하여, 세계문단의 최고탑을 향하여 용진하고 있다.¹⁷⁾

이러한 자주적 인식은 민족의식과 결부되어 『조선소설사』를 저술하는 하나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신문들은 모두 언한혼용체로 문장의 힘과 문학의 취미를 통하여 인민을 감화시키고 각성시키는 데 많은 공로가 있었다. 예컨대 ‘동포여, 동포여, 知乎아, 否乎아, 生乎아, 死乎아,’하는 강개한 문구의 나열”¹⁸⁾이라는 표현이나, “성균박사 신채호(단재)가 「이태리삼절전, 「울지문덕전, (…)

같은 역사소설을 지어 신생면을 개척한 것도 융성한 정치사상과 국가관념을 반영한 시대적 산물”¹⁹⁾이라는 서술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문학사 인식은 “김남운, 이일(동원), 방인근(춘해), 김명순(탄실), 최상덕(독견) 제 씨는 낭만주의, 자연주의, 신낭만주의 내지 퇴폐허무주의의 어느 유파임을 막론하고

15) 박희병의 위의 글, p.259.

16) 김태준의 『조선소설사』, 1933. 이 글에서는 도서출판 예문에서 1989년 재출판 본을 사용, p.189.

17) 위의 책, p.187.

직접간접으로 민족의식의 현양에 있기 때문에 일언하면 민족주의 문학²⁰⁾이라하여 사조나 유파¹⁾에 관계없이 '민족의식의 현양'에 작용하면 '민족문학'이라는 등식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이광수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나라를 경영하려던 지식들은 모조리 해외에 망명하거나 영어에 매여²¹⁾”있다고 쓰고 있다. 그러면서 1930년대 초반까지의 문단이 침체하게 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1. 출판, 집회의 자유스럽지 못한 것.
2. '인테리' 층은 모두 일본말로 쓴 책을 직접 읽어 버리는 것.
3. 문맹이 많고 일반 독서벽이 적을 뿐 아니라 경제공황으로 구매력이 적은 것.
4. '인테리' 작가들의 용어가 너무도 '노동자', '농민'의 이해하기에는 현격하게 어려운 것.(작가체험이 적음으로 인함)
5. 언론기관, 신문 잡지의 부진으로 인하여 원고료도 없고 작가생활의 불안정함에 의한 것 등등²²⁾

즉, 자주적인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측면과 노동자·농민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말미암아 문단이 침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침체로 말미암아 김태준은 신소설과 춘원의 소설, 그리고 당시의 소설문단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갖고 있었다. “갑오경장 후에 일본을 통하여 온 구미식 소설을 수입하여 ‘신소설’을 지었으나 그 또한 고대소설과 오십보 백보의 사이에 있는 것”이라는 부분이라든가, “춘원 일파가 순 서양식으로 소설을 짓기 시작하였더니 다시 ‘이데올로기’의 상좌로 춘원식의 내용을 담은 소설은 벌써 구관폐루처럼 되었다”, 또 “갑오경장 후 사십 년이란 문학운동의 역사를 가지고도 아무것도 이렇다할 작품 하나 없는 것은 유감, 아니 통곡할 일이다”는 것들이 그것이다.²³⁾

이러한 불만적 내용은 자주성이 없다는 데에서부터 문학사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삼국사기』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그의 불만의 근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 위의 책, p.209.

21) 위의 책, pp.200~201.

한취(漢趣)를 보이며 중국의 정사를 모방하여 국고(國故)의 원형을 변경하며 한인의 풍습을 숭배하여 모든 것을 한식으로 평정하여 다만 후인의 눈에 번지르르하게 보이게 한 것이 고사(古史)의 누가 되고 국민문학의 죄를 짓게 되었다. (...) 그는 유가의 견지로써 괴란(怪亂)하다면 말삭(末削)하고 비야(鄙野)하다면 변환하기를 서슴지 않고 자구의 편을 위하여 침삭을 임의로 하며 호오의 정을 인하여 취사를 예사로하여 사실에 충하려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관에 구(拘)하려 하였기 때문에 「삼국사기」에서 국민문학의 연원을 규지코자 함은 실로 불가능에 속할 것²⁴⁾

김태준의 불만은 사대사관과 단순 모방으로 인하여 우리의 것이 소멸해 간다는 위기 의식 때문에 생기는 불만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삼국사기」에 대한 불만처럼 이 문학사를 저술하고 있을 당시에 대한 불만도 거의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아직도 여명기요, 과도기란 말이나? 좀더 진정한 투사와 ××××을 대변하는 현실의 요구있는 역량있는 작가를 기다릴 따름”²⁵⁾으로 1930년대 초반의 소설문단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진정한 투사”를 갈망하고 있다.

이러한 ‘영웅대망’은 문학을 통하여 민중의 의식을 일깨우고 민족적 역량을 일으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현실 때문에 ‘구소설’에서는 “애국적 의분과 충용의 전적을 경(經)으로 하고 풍부한 자주독립의 정신을 위(緯)로 하여 시적으로 직출(織出)한 군담이 자못 많”²⁶⁾다고 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방대한 문학유산을 가졌으며 이것을 인민에게 널리 보급·선전시키지 않고는 (...) 일반인민의 문학식량의 일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²⁷⁾고 하면서 “우리의 고전문학도 그가 인민의 이익을 위한 입장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평이하게 해명되어야 할 것이며, 과학적 조명밑에 비판적으로 섭취되어야 할 것이다”²⁸⁾고 하여 과거의 문학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또 “문화유산과 외국문화의 정당한 섭취로써 인민문화의 영양을 삼자!”²⁹⁾고 하

24) 위의 책, p.27.

25) 위의 책, p.220. ; 1939년 증보판에서는 삭제된 부분임

26) 위의 책, p.63.

27) 김태준, 「문학 유산의 정당한 계승방법」, 조선문화가동맹 편, 「전설기의 조선문학」, 은누리, 1988. p.118.

28) 위의 글.

29) 김태준, 「민주주의와 문화」.

여 우리 문학의 올바른 섭취와 외국 문학의 수입으로 미흡한 우리의 문학 현실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외국 문학의 수입은 신소설이나 춘원 일파의 소설과는 달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정당한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갑오의 개화운동에서 다시 기미의 ××운동을 지난 조선사람은 대량으로 구미 문화 내지 사조를 끊임없이 수입해서 구주에서 오륙십 년 전을 두고 태생한 각종의 사조가 일시에 밀려들어 불과 수 년 동안에 모든 사조의 주입과 혼란을 보게 되었다. 문예방면에 있어서 낭만주의에서 자연주의로 신낭만주의로 세기말적 사조의 족생까지가 기미 직후의 사조 분란상이었다.³⁰⁾

즉, 무비판적으로 구미 문화와 사조를 수입하여 혼란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에 “과도기”라는 것이다. 김태준의 이와 같은 문학사 인식은 1946. 2. 8~9일에 치러진 「제1회 전국문학자대회」의 「민족 문화의 정당한 계승과 방법」이라는 보고 연설에서 “우리 고문화의 장점을 계승하고 외국의 진보적 문화를 비판적으로 섭취하여 우리 민족의 특성을 발휘할 새 문화를 세워야 한다. (...) 전통만능과 배외주의로 나타나는 국수주의적 경향의 대두를 극히 경계하고 단호히 이것을 배격하여야 (...) 민족문화를 진보적 방향으로 인도”³¹⁾할 수 있다고 『해방일보』의 사설을 인용하고 있다.

즉, 전통의 정당한 계승과 외래적인 것의 정당한 흡수, 이 양자의 조화에서 새로운 문화가 건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외래 문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자기네의 나라보다는 고도되는 문화를 수입하여 널리 지식을 세계에 구하여 잘 소화시켜서 충분히 자기의 고유한 지식과 혼합하며 고유한 사상과 조화하여 능히 다시 출람의 미가 있는 작품을 산출”³²⁾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는 『홍부전』을 “건조무미한 처녀각시의 탁타령을 수입하여 착한 아우와 못생긴 형과의 싸움에 의의 있게 이용하여 철을 화(化)해 금을 이뤘다”³³⁾고 하여 외래의 문화를 자주적

30) 김태준의 『조선소설사』, p.204. ; 1939년 증보판에서는 삭제된 부분임

31) 김태준의 「민족문화의 정당한 계승 방법」(해방일보 1946. 2. 9일자 사설 ‘조선 민족문화 건설의 노선’을 인용)

32) 김태준의 『조선소설사』, p.56.

33) 위의 책, p.118.

로 우리 것으로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김태준의 문학사 인식은 우리 민족문학을 세계 문학의 보편성 속에서 일반화하고자 했다.

국경선을 초월하고 세계인류를 한집 식구와 같이 융통케 한 것은 위대한 문화의 힘이고, 문화는 어느 계급의 독점과 어느 국가의 전유를 용서치 아니하여 도처에 전파되었으니 문화에 들어 네것 내것이 당초부터 없었으며 인류의 정신생활은 본래부터 세계적이었다. 그 가장 재미있는 증거를 각국에 떠돌아 다니는 동화와 전설의 전파성에서 볼 수 있으며 (...) 우리네의 정신생활이 어떻게 오랜 옛날부터 세계적 분량을 가졌던 것인지 새삼스럽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 뽀넨, 안델센, 그립과 같은 동화집은 없을망정 (...) 그와 같은 동화, 전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조화하고 우리네의 풍속, 습관, 신앙, 전설 등과 절충하여 구래의 원형을 변하여 버리고 점점 가극, 타령, 강담, 소설의 유로 변천해 버렸다.³⁴⁾

김태준은 이렇게 세계 문학과 비교를 통하여 우리 민족문학의 우수성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다. 즉, 「두꺼비전」을 이야기하면서는 “이 논쟁설화는 인물 표준이 재덕에 있고 문벌에 있지 않다는 것을 표명한 (...) 것으로 兎兔競走에 거북이가 이긴다는 설화와 동일한 근원인 듯하다”³⁵⁾고 하는가 하면, 「공쥐팔쥐」에 대해서는 “서양에 널리 유행하는 선고담 「신데렐라」와 동계의 설화이니 이 이야기 혹은 좀 변작한 유화는 서양 각국에 많이 유행”³⁶⁾하고 있다고 쓰고 있다. 또, 「적성의 전」을 “조선에서는 드물게 보는 불미가 농후한 표류담”으로 설명하면서 “「로빈슨 크루스 ...」나 혹은 「에스 신드바트」를 연상하겠지만 여행중의 기적을 탐험함으로써 목적인 것이 아닌 만큼 그와도 유가 다르다”³⁷⁾고 하여 우리 구소설이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문학사에 대한 자주적인 인식은 그 출발부터 식민사관인 日鮮同祖論이나 停滯性·타율성 이론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식민사관을 부정하는 차원에서 영정조 시대를 근대의 기점으로 삼고 있으며, 갑경이전의 구소설에서 당시 문학 발전의 근원을 찾고자 전통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일제가 우리의 갑경이전의

34) 위의 책, pp.109.~110.

35) 위의 책, p.114.

36) 위의 책, p.112.

37) 위의 책, p.123.

작품에 대하여 정체되어 있다는 이론에 반박하기 위해서 세계문학과 비교제시하여 일반화하면서 우리 민족문학을 어떻게 계승·발전시킬 것인가의 자주적 문제로 귀결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주적 인식이 문자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즉, 우리 문자인 한글로 쓴 문학만이 진정한 민족문학이라고 보고 있다. “국어를 떠나서는 도저히 국민문학이니 향토예술이니 한 것이 완성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말 조선문학은 한글 창정후로부터 출발하였다고 함이 가하다”³⁸⁾고 하면서 문학사의 주체인 민중과 문학사를 이루고 있는 사회상과 관련지어 문자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식민사관의 극복 차원에서 시작하여 자주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민족의식의 현양된 민족문학이 없어 문단은 침체 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사대사관과 단순모방으로 인하여 우리의 것이 소멸해 간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사대사관과 단순모방은 일제 식민사관의 결과로 인식하고 이의 극복을 위하여 ‘구소설’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하여 민족문학의 정체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 주고자 했다.

이러한 문학사의 자주적 인식은 문학사의 주체인 민중에 대한 인식도 달리하고 있다. 그러면 문학사의 주체인 민중을 중심으로 한 문학사 인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민중 중심의 문학사 인식

김태준은 문학사의 주체인 민중의 개념³⁹⁾을 대체적으로 ‘노동자·농민과 같은 무산자 계급’과 ‘대다수의 민족인 시민계급’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중에 대한 인식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인식되고 있다. 그 하나는 일제 강점기

38) 위의 책, p.54.

39) 김병택, 『한국초기근대시론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pp.61~62에 의하면 20년대에 사용했던 민중의 개념은 ‘독자로서의 일반국민’, ‘평민’, ‘일반 서민’, ‘노동자·농민과 같은 무산자 계급’, ‘하부구조에 참여하는 사람’ 등으로 쓰였다고 정리하고 있다. 또 김형원의 경우는 “현실의 주인공”, “동등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이웃과 동포형제”를 의미했다고 한다.

또 이만열의 위의 책, p.316에서는 민중이란 말은 20년대부터 쓰였으며, “소수의 특권층이 아니고 다수의 피지배층이라는 점과, 일제의 식민통치를 배격하는 민족 독립운동의 주체로서 새 역사의 발전을 위해 투쟁하는 세력”, 또는 “의식화된 대다수의 백성”, “근대사회 형성과 때를 같이하면서 나타난 <시민계급>”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에 민족사관의 자주적 주체에 입각하여 민족운동의 전개와 관련시켜 인식하는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광복후 남로당의 핵심 인물로 활약하면서 ‘민중’을 계급투쟁의 전위대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

일제 강점기에서는 민중을 문학사의 자주적 주체로 보고, 민족사의 주변부로 인식되던 민중을 중심부로 끌어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춘향전」을 설명하면서 “시대를 옮겨 보면 강희 시대의 청국보다는, 혹은 1740년의 구주보다는 민중의식이 왕성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⁴⁰⁾고 하여 민중의식이 청나라나 서구보다 먼저 발흥했음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자긍심은 “갑오의 개화운동에 개성에 눈을 뜬 것 같은 조선사람들은 기미의 ××운동에 비로소 영원한 잠에서 깨었다. 사회운동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진정한 문예운동도 이 때에 출발하였다. ××자결이니 강화회의니 하는 소식이 해외로부터 전하여 올 적에 도시로부터 산간의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끝없이 즐거워 ××를 부르짖고 열광적으로 작약하였다. 젊은 ‘코리아’의 희망은 가슴에 차고 남았다”⁴¹⁾고 하면서 문학사의 주체인 민중, 즉 “산간의 남녀노소”를 통하여 민족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민중 중심의 문학사 인식은, 이광수에 대하여 언급하는 부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조선 사람으로서 서양 사람이 말하는 의미의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도 씨요 조선말로 평이하게, 아름답게 사상,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도 씨다”⁴²⁾, 또 “봉건적 가족주의를 중심으로 한 사회를 타도코자 노력”⁴³⁾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갑오경장을 경계로 조선의 역사는 이분되어 대략 갑오 이후는 신흥하는 시민이 사회의 중추를 이루고 소설·연극은 물론이요 모든 문화형태가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요구하는 기운에 당착하였다. 그 새 것이란 것은 낡은 것 속에 배태되어 낡은 것을 부정하고 나온 것이다. 이때부터 조선의 신문예운동 내지 문화운동이 출발되는 것이다.⁴⁴⁾

즉, 갑경이후부터 ‘신흥하는 시민사회’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새 것’을

40) 김태준의 『조선소설사』, p.167.

41) 위의 책, p.203. ; 1939년 증보판에서는 삭제된 부분임

42) 위의 책, p.201.

43) 위의 책, p.201.

44) 김태준의 『증보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p.220.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중 중심의 문학사 인식이 그로 하여금 '문학사'가 아닌 '소설사'를 쓰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소설사만이 민중을 중심으로 서술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이조 말엽 특히 순·현·철·광무 시절까지는 조선의 봉건적 금자탑의 붕괴와 양반 대신에 신홍하는 시민·중인·서얼·서리·평민·천민(七般賤役) 등에 의하여 그들 자신의 오락에 공교자 다수한 소설·연극을 필요"⁴⁵⁾로 하였다고 쓰고 있다. 또 "서리 출신의 신재효씨 같은 이는 순조시절부터 이야기책을 광대의 소리로 개작하였다 하거니와 신시대에 새로 등장하는 시민들은 좀더 새로운 형태의 복잡한 소설·연극을 요구했던 것"⁴⁶⁾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평민·여성"으로 하여금 쉬운 문자인 "한글"을 통해 기존 관념과 계급을 풍자 비판하는 작품이거나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문학에 주안점을 두고 그들과의 관련하여서 서술하고 있다.

갑오의 개화운동은 (...) 소설에 대하여는 혁명을 유인하였다. 즉 번역과 국문 운동을 통하여 신문에운동의 서막을 열었고 언문일치로써 소설을 쓰고자 하는 운동이 생겼다.⁴⁷⁾

즉, 민중을 위하여 번역하고 언문일치의 문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것이다. 또, 나도향의 「환희」에 대하여 "기미 직후의 여성, 새로 개성에 눈을 뜬 과도기 신여성의 심리"⁴⁸⁾에 대하여 썼다고 하여, 신소설 이후 여성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평민이나 여성을 중심으로 한 문학사 인식은 그 매체인 문자와 직결시켜 인식하고 있다. 그는 조선 시대의 소설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진정한 의미의 조선소설 내지 문학은 훈민정음의 제정 이후에 기원"한다고 하고, "정음문학은 종래의 한문학이 귀족적임에 대치하여 문학에 주려있는 평민에게 절대적 환영을 받아 일사천리로 춘리에 보급되었다"⁴⁹⁾, 또 "한글이 점점 지식층에까지 침입하여 문예가 평민화하는 경향이 전개되어 우리말로 기록된 소설

45) 위의 책, p.219.

46) 위의 책, p.220.

47) 김태준, 『조선소설사』, pp.187~188.

48) 위의 책, p.209.

49) 위의 책, p.18.

이 선조 이후에 시작하여 숙종 때에 가장 융성⁵⁰⁾하다고 하여 민중을 문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좀더 확대하여 「여장군전」은 “여자의 몸으로서 솔선하여 전장에 나아가 용감히 싸운 것은 올레안 성하의 잔다크양에게 떨어지지 않을 만큼 광망이 혁혁하고, 전지에서 사랑을 찾으며 사경에서 애인을 구코자 열정이 비등하는 그네의 가슴은 어머님을 찾아서 삼천 리를 가는 어린이의 그것과 같이 순진하고도 열렬하다⁵¹⁾”고 쓰고 있다. 즉, 민중을 “어린이의 그것과 같이 순진”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김태준이 문학사 인식에 있어 주된 관심사항은 “「구운몽」은 당초에 한글로 지은 소설이므로 국민문학의 가치⁵²⁾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 두 번째로 「옥루몽」에 대해서 “애인을 위하여 죽기를 사양치 않는 열정과 국가를 위하여 만군중에 뛰어드는 용기와 가실을 화합시키는 지혜와 모든 순미한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여성묘사에 성공하였다⁵³⁾와 같은 것, 또 「옥낭자전」을 설명하면서 “예전 작가들은 주인공을 사지에 두었다가 마지막에는 주인공으로 하여금 특이한 생활을 시켜 보이는 것이 동양윤리의 정취요 시대정신의 요구였다⁵⁴⁾와 “연암을 저뵈하는 때는 사라지고 연암 시대는 닥쳐왔다. 연암이 사랑하던 민중은 이제야 가지가지의 찬사를 봉정하였다⁵⁵⁾와 같은 것 등으로 ‘한글·평민·여성·시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자·평민·여성·시대’에 대한 관심은 기존관념이나 계급의식이 무너짐을 표현하거나 풍자하는 문학에 집중되어 있다.

「옹자전」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의미를 보여 준다.

가) 부녀의 말에도 삼분의 도리가 있거늘 가장된 체면에 과도히 오만하여 집사람의 충언을 듣지 아니하다가 죽어버렸다는 비유로 볼 것이니 평민문예의 측면사상으로 볼 것이다.

50) 위의 책, p.44.

51) 위의 책, p.92.

52) 위의 책, p.107.

53) 위의 책, p.107.

54) 위의 책, p.158.

55) 위의 책, p.146.

나) 탐관오리와 사리조전하는 특권계급의 운명을 풍유하고 시대의 적폐에 대한 냉소 그것이니 평민문예의 정면사상으로 볼 것이다.

다) 남편 죽은 부녀가 수절할 필요가 없다는 야유 (...)56)

즉, 여성문학, 중인문학, 서얼층의 문학에 주목하면서 “타락한 사회상과 圖末의 情形과 廢俗”77)을 고발하는 허균, 박지원, 김삿갓 등 비판적 문인의 문학적 성취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암 등에 대한 당시의 관심은 광복 후에 ‘사회적·경제적 변화의 발전상을 바탕으로 성장해가고 있던 민중세계의 역사성을 올바르게 포착하였던 실학의 참모습을 찾아내어 역사의 주체적 발전과정을 체계화’58)하는 주체성론의 순기능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민중에 대한 인식은 점차 계급성을 부여하여 인식하고 있다. 조명희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씨는 계급적 정열이 높은 시인으로 신경향과 초기에 (...) 현실주의적 시구를 많이 쓰고”59)라든가, 박영희의 「사냥개」에 대하여 “사냥개가 주인을 물어 죽인 것은 모순이라고 해도 자본계급에 대한 ××을 그렸다”60)와 같은 경우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계급성의 부여는 경향문학의 등장을 환영하고 있는 데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는 경향문학의 정치성의 계보를 “실로 경향문학의 정치성은 이인직 시대의 계몽의 정신과 춘원의 이상주의적 설교를 계승한 바 일관된 조류”이며 “현실을 전면에서 파악할나는”61)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소시민층의 규환이 들려오고 하층민이 그 생존과 존속의 확고한 지위를 단호히 요구”하고 있는 작품으로 “팔봉씨의 「붉은쥐」에 출발해서 서해씨의 「홍염」·「기아와 살육」, 조명희의 「낙동강」, 같은 경향을 경과해서 「작가철인집」, 민촌 이기영의 「서화」·「고향」과 같은”62) 작품들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또 “조선인구의 팔 할을 차지한 농민층에까지 신흥문학이 빨리 확대하여야 할 것과 작가의 자기청산이 빨리 되어야 하겠

56) 위의 책, pp.110~111.

57) 김태준, 「조선한문학사」.

58) 강만길,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창작과비평사, 1879. p.57.

59) 김태준의 「조선소설사」, p.216.

60) 위의 책, p.214.

61) 김태준, 「증보 조선소설사」, pp.269~271. ; 1933년 초판에서는 없던 부분임

62) 위의 같음.

다⁶³⁾는 주장으로 당시의 작가들에게 민중을 위한 문학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민중 중심의 인식은 좀더 발전하여 계급투쟁의 전위대로 인식하게 된다. 즉, “1930년을 전후로는 벌써 ‘노동자’, ‘농민’의 경제적 ××과 전위들의 생활, 스트라이크, 농촌참상, 계급의식의 선전 등을 제재”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그 구체적인 예로 이기영의 「원보」, 한설야의 「과도기」, 이효석의 「도시와 유령」을 들고 이들 작품에 대하여 “구체적 인물의 성격과 사회적 환경과 위치와 사건을 통하여 ×××의 불합리 및 그 사명과 의식을 알리게 한 것은 재래의 대화식에서 일 보 나간 것⁶⁴⁾이라 하고 있다. 이러한 계급투쟁적 인식은 민족의 독립과 관련된 것으로 민중을 독립운동 전개 원리 속에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운동 전개 원리 속에서 민중을 인식하는 경우는 광복 후의 행적에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그는 1944년 출옥후 연안으로 탈출했다가 광복후 북한을 거쳐서 1945년 11월 서울에 돌아와 남로당의 핵심인물로 활약한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에 KAPF에서 활약하면서 인식하고 있던 ‘무산대중’ 또는 ‘하부구조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민중의 개념에서 계급성을 부여한 투쟁적 개념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1946년 「민주주의와 문화」에서 “민주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한 교육, 경제건설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기술자의 양성, 노동자의 교양, 부인계몽 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⁶⁵⁾”고 하여 “민주 사회의 건설”을 위해서는 “기술자”, “노동자”, “부녀자”의 계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공장 학교, 노동자 학교, 농촌 야학 등의 시설”이 필요하며 이는 “초미의 급을 요한다⁶⁶⁾”고 하여 민중을 계몽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중 계몽은 목표 — 민주 사회 건설 — 를 위한 방법으로 조직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의 의식을 가지고 대중의 용어를 쓰고 대중이 요구하는 바를 표현⁶⁷⁾”해야 하며, “삼천만 민중이 함께 웃고 울고 할 수 있는 문학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민족적이어야 하고 무산계급을 핵심으로 한 인민적인

63) 김태준, 「조선소설사」, p.219. ; 1939년 증보판에서는 삭제된 부분임

64) 위의 책, p.217.

65) 김태준, 「민주주의와 문화」 「민주주의 12강」(1946)

66) 위와 같음.

67) 위와 같음.

것”⁶⁸⁾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작가들은 “대중의 입장에 서고 잘 ‘대중’을 알려 몸소 대중의 일인으로서 출발”⁶⁹⁾해야 하며 “예술운동은 예술을 위한 정치운동의 일익으로서 전개되기를 요청하는 것이며 (...) 대중 속에 들어가서 대중을 가르치며 대중에게 배워야 할 것”⁷⁰⁾이라고 하고 있다. 즉, 이러한 작가만이 “민주주의적인, 대중적인 작가”⁷¹⁾라는 것이다.

우리는 일면 자기의 개조와 반동 조류와의 투쟁과 인민의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생활의 평민적 해결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하면서 문학을 이해하고 문학을 감상할 수 있는 광범한 기반을 근로대중 속에 두지 않고는 모처럼 근로대중을 위해서 정당하게 쓰여진 작품도 대중과는 아무 관계없이 존재할 것이므로 대중을 계몽하고 교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무인 것은 여기서도 이해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높게 쳐드는 민족문학은 국수주의적, 보수적, 배타적인 문학이 아니라 광범한 인민으로서 된 인민대중의 문학이면서 동시에 민족문학인 민주주의 민족문학을 말하는 것이다.⁷²⁾

이렇게 “민주주의 민족문학”의 중심부에 민중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광범한 대중계몽, 문맹퇴치, 의무교육, 노동야학, 씨클활동 등으로서 인민문화의 터전을 닦”⁷³⁾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문화발전의 의미가 우리 민족의 지도 원리와 방법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민중에 대한 개념이 일제 강점기에서는 ‘대다수의 민족인 시민계급’ 즉, ‘산간의 남녀노소’로 인식하다가 광복 후에는 ‘계급투쟁의 전위대’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민중에 대한 인식은 민족의 독립운동 전개와 관련된 지도 원리에 바탕을 두고 ‘문자·평민·여성·시대’에 주목하고 있다. 결국 이들 민중을 위한 문학은 시가가 아닌 소설이나 연극이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학사’가 아닌 ‘소설사’를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민중 중심의 문학사를 인식함에 있어서 순수한 민족의 자주적 주체로서의

68) 위와 같음.

69) 위와 같음.

70) 위와 같음.

71) 위와 같음.

72) 위와 같음.

73) 위와 같음.

인식에서부터 계급투쟁의 전위대로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민중을 계급투쟁의 전위대로 인식하는 바탕은 당시의 사회경제 사학이다.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문학사를 인식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사회경제 사학을 바탕으로 한 문학사 인식

사회경제 사학은 우리 역사를 유물사관적 법칙성에 맞추어 체계화함으로써 그것을 세계사적 발전과정의 일환으로 이해하려는 것이다.⁷⁴⁾ 唯心史觀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唯物史觀의 주요 관심사는 '사회적 생산력과 생산관계', 생산력의 누적적 발전법칙', '계급과 계급투쟁',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사회적식'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⁷⁵⁾ 이러한 사회경제 사학은 민족사학론이 가지고 있는 신비주의적인 민족관을 배격하고 또 그 사관의 국수주의적인 성격을 공박하면서 "세계사적 일원론적 역사법칙을 도입하여 식민사학이 만들어 놓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의 소위 특수사관을 배재하고 그것을 통하여 식민지 치하에서의 민족적인 하나의 활로를 열어놓으려 노력"⁷⁶⁾하였다.

김태준은 이러한 사회경제 사학의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조선소설사』를 집필하면서 적극적으로 식민사관을 극복하고자 했다. 그는 신경향파 대두의 의의를 "1923년 이후 돌연히 일각에서 기성 문단에 향하여 도전의 일단을 던진 것이 무산 계급 문예운동이며 1925년 7월에는 조선프로예술동맹까지 성립되어 아무 공적은 없었다고 할망정 많은 투장(鬪將)을 그 산하에 모아 이론과 창작의 양면으로 기성 문단을 압도"⁷⁷⁾했다고 하면서, 대두하게 된 사회적 조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원시적, 봉건적인 민족주의도 기미 이후 사회정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한편으로 무산계급의식이 맹아되었다. 그리하여 1923년부터 「개벽」을 독무대로 하고 신경향파의 작가가 대두하였다. 이를 대두시킨 사회적 조건을 들면 첫째로 위에서 말한 사회정세에 의한 것이요, 둘째로 현대 자본주의 경제조직의 ××으로부터 생기는 노동대중의 생활상 곤궁과 사회적 불안의 사실, 셋째로 이 곤궁과

74) 강만길의 위의 책, p.27.

75) 임종철, 「마르크스의 유물사관」, 차하순의 위의 책, p.78.

76) 강만길의 위의 책, p.40.

77) 김태준의 『조선소설사』, p.187.

불안에 항상 당면하고 있는 노동대중의 ××에서 출발한 계급사상의 세계적 전파에 의함이다. 이에 민족의식에 질적 변화를 주어 재래의 원시적 민족주의 문학에도 내용적 진전을 주며 심한 자는 방향을 전환하여 오는 것이다. 오늘에 이르러서도 기성작가가 단일방향히 생활하는 영역을 그리거나 빈곤한 가정 혹은 일개인을 제재로 하여도 거기에는 예전 같으면 현실을 몰각하고 이른바 상아탑 속에서 예술만 찾던 것이 이제 예술냄새가 박약해지고 계급사회의 현실을 향하여 보무를 읊기고 있다.⁷⁸⁾

즉, 신경향파가 대두하게 되는 사회적 조건을 ‘첫째 사회정세에 의한 것’, ‘둘째 노동대중의 곤궁과 사회적 불안’, ‘셋째 노동대중의 계급사상 전파’에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조건에 의해 대두된 신경향파가 ‘민족의식의 질적 변화’를 가져와 ‘재래의 원시적 민족주의 문학’의 방향에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이제 ‘단일방향한 기성작가가 현실을 몰각하고 상아탑 속에서 예술만 찾는 것’은 ‘계급사회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즉, “기미 이후에 기생, 불량소년 등을 그린 모든 퇴폐적 문학이 얼마나 현실에 공헌하고 있는가 생각도 하여볼 문제”⁷⁹⁾라고 하는가 하면, 김기진의 말인 “조선사람의 이 현실 생활은 문학상 좋은 작품을 탄생하게 할 여러 가지 충실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나타나는 작품은 모두가 그만그만하니 웬일이야 … ‘우리들의 작품이여’할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다섯 사람의 ‘모파상’이나 ‘졸라’는 있되 한 사람의 ‘고리끼’는 없다”⁸⁰⁾고 하여 신경향파 대두 이전의 문학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신채호의 역사소설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시사를 개탄하는 정치언론을 중요시하고 순문학같은 것은 아주 우습게 여겼다”⁸¹⁾, 또는 김동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서 “씨의 사상문명에 큰 변화가 있을 적에 나는 다시 씨를 논하기로 하겠다”⁸²⁾라는 부분에서 문제제기의 근원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문단이 침체되어 있다고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잡문학은 각종 취미잡지나 전문잡지를 통하여 번성하면서도 아직도 童話운동,

78) 위의 책, p.210 ; 1939년 증보판에서는 삭제된 부분임

79) 김태준, 「문학혁명 후의 중국문예관」

80) 김태준의 위의 책, pp.211~212.

81) 위의 책, p.190.

82) 위의 책, p.206.

신극운동, 만보산사건, 만주국독립, 정계의 파소화는 한층 재래의 ××운동자의 가슴을 덜렁하게 한다. 이러한 정치적 격변과 경제적 ××은 결국 멀지 않은 장래에 그 무엇을 우리 안전에 제공할 것인가? 재래의 잡동사니 단체인 신간회로는 아무것도 못할 것을 느끼고 解消하여 버렸다. 이 사회의 대중은 점점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알았다. 그들은 모두 기아의 사선에 섰다. 민족문학, 인도주의문학, 예로, 그로, 데카단문학도 더운 밥 먹고 식은 소리로 듣는다. 그들에게는 잡문학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⁸³⁾

즉, 경향문학이 아닌 것은 모두 “잡문학”이며, 이러한 잡문학으로는 ‘사회 대중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기아의 사선’에서 있는 대중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실로 경향문학의 정치성은 (...) 현실을 전면에서 파악하려는 지향과 소설을 자기로부터 해방한 것과 객관소설의 길”⁸⁴⁾을 열었다고 그 공적을 내세우고 있다. 즉, 경향문학은 ‘만주의 광야, 재동경조선인의 생활, 도시 노동자, 농촌의 생활을 취급함으로 해서 전조선의 문학’이 되는 공적을 쌓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한계점으로는 ‘때가단스의 분열을 초극·조화하고 사상성과 묘사성으로 통일하여 시민문학적 특성을 갖는 세대의 문학으로서 통일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관념과 현실의 통일’이 경향문학이 안고 있는 새로운 과제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설야의 「과도기」와 이기영의 「고향」을 꼽고 있다.

서해는 만주의 광야를 송영씨는 재동경조선인의 생활을 김영팔씨 같은 사람은 도시 노동자를 민촌은 농촌의 생활을 취급해야 조선소설은 명실공히 전조선의 문학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는 동인·상설·재씨의 외부로 향하는 묘사의 정신과 내부로 향하는 의욕의 정신이 1923년대 즉 자연주의·때가단스의 대립에서 최대한으로 분열된 것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분열을 초극하고 조화하고 높은 사상성과 묘사성에서 통일할 신경향파 문학에까지 이 분열은 강한 흔적을 남기었다는 사실이 주목되는 데 경향파는 시민문학의 특성이었던 이 분열을 이 세대의 문학으로서의 정신적 예술적 미숙 때문에 통일하지 못하였다. 관념과 현실의 통일은 경향문학의 신과제였다. 이 시기의 대표작이 설야씨의 「과도기」일 것이다. 「과도기」가 현실에서 분열된 관념과 관념에서 떠러진 묘사의 세계를 일관한 구조 가운데 형성한 작품이다. 양식에 있어서만 아니라 정신에 있어서 「과도기」는 새 시대의 문학이었다. 「언은 것은 이데오로기·요 일은 것은 예술이라」는 조롱을

83) 위의 책, pp.218~219.

84) 김태준, 『증보조선소설사』, pp.269~271. ; 1932년 초판에서는 없던 부분임

뛰어넘어 이런 소설을 집대성한 것이 경향소설의 제일 큰 기념비가 이기영씨의 작품 「고향」이었다.⁸⁵⁾

김태준은 경향문학의 이러한 공적을 계급의식의 성장과 계급투쟁론에서 찾고자 했다. 이렇게 역사를 투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단재의 이른바 “역사는 我와 非我의 투쟁이다”는 정의를 비롯해서 “발전이란 곧 대립하는 존재들의 투쟁”⁸⁶⁾ 등 시대를 거듬하면서 논의되고 있다. 사회주의 문학론에서는 “문학의 역사는 계급의 역사”로 규정하고 “문학전선에서의 계급투쟁은 다른 모든 전선과 마찬가지로 격렬하게 문학적 방법으로 수행”⁸⁷⁾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투쟁의식은 한 말에 외세의 침략과 일제의 강점과정을 비롯한 강점기에 민족을 수호하려는 민족사학의 한 방법으로 시작되어 광복후에는 식민사학의 잔재를 청산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

김태준은 “경제 위에 부자연하고 조작하게 발달된 조선의 연문학을 봉건붕괴과정에서 집성하였기 때문에 이는 이후 자본시대와 깊은 내용적 관련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⁸⁸⁾고 영정조 시대의 근대문학을 비판하면서 “피압박민중의 딱한 환경하에서 가장 환영되고 또 환영되어야 할 문학은 능히 시대를 투시하여 민중에게 많은 반항의 정신과 ××의 역량을 주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⁸⁹⁾고 강변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태도는 중국의 신문학을 공부하면서 세계관과 문학적 관점이 민중적·계급적 방향에서 정초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문학혁명 후의 중국문예관」에서 중국 신문학이 ‘문학혁명 → 혁명문학 → 프로문학’으로 발전해 왔으며, 세계문학의 최고봉이 프로문학이라고 인식하고 있다.⁹⁰⁾

따라서 그가 근대문학의 기점으로 삼고 있는 영정조 시대의 문학을 통하여 우리 문학의 우수성을 내세우는 것은, 영정시대에 이미 ‘문학혁명’이 이루어졌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춘향전』을 “상류사회가 승인치 아니하는 염정소설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85) 위의 책, pp.270~271. ; 1932년 초판에서는 없던 부분임

86) 임종철의 위의 글, p.84.

87) 누시노프, 세이트린, 『사회주의 문학론』, 백효원 옮김, 과학과 사상, 1990. p.58

88) 김태준, 『증보 조선소설사』, p.200.

89) 김태준, 「문학혁명 후의 중국문예관」

90) 박희병의 위의 글, p.253.

걸작⁹¹⁾이라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평등대우를 절규하는 것이 개성에 눈뜬 춘향, 아니 자유를 찾는 민중들의 구호⁹²⁾였다”는 것이다. 즉, 판소리를 “가창하는 사람들은 일반 민중의 열에도 참여치 못하는 기생·광대들이므로 이러한 예술영역에서만 되는 대로 부연해서 기염을 토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배적 사상과의 충돌, 주저, 경멸, 반항, 풍자의 여러 가지 장면을 보여주는 것⁹³⁾이라 하여 자본주의 시대의 문학과도 내용적 관련이 깊기 때문에 계승·발전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즉, “동양 윤리와는 배타코자 하는 대 특권계급의 반항운동⁹⁴⁾”, “봉건적 구세력에 대립한 의식⁹⁵⁾으로 계급투쟁과의 관련하에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허균의 시대를 “당파의 알력, 양반의 발호, 갖은 착취와 학대를 받는 천민의 원차한 허공생활과 의미없는 의례와 허위의 형식! 그 속에 난무하는 권태와 환락의 분자! 그리고 가장 다수한 순박하고도 잔멸하여 가는 대중!⁹⁶⁾”이라고 전제하고 『홍길동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저상압기(屠喪押妓)와 참선배불은 허위한 의식과 모호한 도덕을 탈각코자 함이요 복심을 합하여 당을 지으며 흥요조참(興妖造讖)하고 사작고급(詐作告急)한 것은 민심을 착란시켜 혁명운동을 이루고자 함이요 침체하류(沈滯下僚)는 그가 스스로 평민적 태도로서 대중의 지도자가 되어 대중을 위하여 싸우고자 함이니 귀족, 부호, 자칭 양반들은 모두 허균의 적이었고 균의 목표는 대중옹호와 사회혁명이었다. 홍길동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1. 계급타파, 특히 서적차별의 폐지를 고조한 것.
2. 향사거벌(鄕士巨闕)과 토호와 귀족을 질시하며 지방수령의 불의지재(不義之財)를 몰수하여 빈민을 구제한 것.
3. 중국 울도국에 들어가서 왕이 된 것 등이다.⁹⁷⁾

허균의 목표는 “대중옹호와 사회혁명”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사회에 대한 비판이 강도가 높은 작품으로 「방격각외전」을 들고, 이는 “사회의 모든 불의를

91) 김태준, 『조선소설사』, p.162.

92) 김태준, 『증보 조선소설사』, p.199.

93) 위의 책, p.193.

94) 김태준, 『조선소설사』, p.164.

95) 김태준, 『증보 조선소설사』, p.193.

96) 김태준, 『조선소설사』, p.72.

97) 위의 책, pp.74~75.

대적으로하여 사회규율의 희생자 — 절인, 仙人, 학자, 지사 등을 위하여 만장의 기염을 토하였다. 그 날카로운 안광에 비쳐오는 사회의 모든 불의적 존재 - 허위, 타락, 당론, 계급 등을 藝·神 혼자가 가진 마수로써 완전히 그려내었다⁹⁸⁾고 극찬하고 있다.

이러한 계급의식은 김태준으로 하여금 사회주의 문학론에서 제기하는 “문학사에서의 특수한 과제의 무시, 예술작품 자체의 표면적인 분석, ‘사회’와 ‘민중’의 계급적 분화에 대한 몰이해, 사회집단 및 첨예한 투쟁을 ‘인류’의 내부에서 파악하는 능력의 결여⁹⁹⁾ 등에 대하여 다소 극복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신경향파는 ‘노동대중의 곤궁과 사회 불안 등’으로 말미암아 대두하였으며, 이는 민족의식의 질적 변화를 주고 민족주의 문학의 방향에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즉, 기성작가들이 계급사회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어 ‘우리들의 작품이여’할 만한 작품은 하나도 없고 잡문학이 번성하여 문단이 침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향문학이 장차 기성문단을 압도하여 문학전선을 비롯한 여러 방법에서 계급투쟁을 통하여 민족을 수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3. 결 론

『조선소설사』를 바탕으로 김태준이 문학사를 어떻게 인식하여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김태준은 문학사를 인식함에 있어 ‘문학의 역사’가 아닌 ‘문학 역사의 과학’으로써 문학사를 인식하고 서술하여 ‘방법으로써의 문학사’ 즉, 문학사를 인식의 결과로 보고 주관성을 강조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구한말에 싹트기 시작한 민족주의 사관과 민중중심 사관, 그리고 기미이후 대두된 사회경제 사학을 바탕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두는 민족 문제와 결부시켜 일제 식민사관의 일선동조론을 비롯하여 정체성 이론, 사대성 이론, 중세·봉건 부채론 등에 대항하고자 하는 의

98) 위의 책, p.153.

99) 누시노프, 세이트린의 위의 책, p.126.

도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민족의 자주성을 인식시키고 일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민족의 지도 원리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지도 원리로써의 인식은 애국·제몽사관에 근간을 두고 민족적 영웅을 대망하고 있다. 이러한 영웅대망의 자세는 당시의 문단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글은 문학사의 자주적 인식과 관련하여 '민족 사관에 의한 문학사 인식', 그리고 문학사의 주체와 관련하여 '민중 중심의 문학사 인식', 또 문학사를 이루고 있는 사회상과 관련하여 '사회경제 사학을 중심으로 한 문학사 인식'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로 '민족 사관에 의한 문학사 인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았다.

1) 『조선소설사』의 집필은 식민사관의 극복 차원에서 시작하여 자주적 문학사를 쓰고자 하는 노력임을 볼 수 있었다.

2) 그러므로 민족의식을 현양해야 민족문학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의식의 현양에 많은 장애가 있어 일제 강점기의 문단은 침체 되었다고 보고 있다.

3) 그리고 사대사관과 단순모방으로 인하여 우리의 것이 소멸해 간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사대사관과 단순모방은 일제 식민사관의 결과로 인식하고 이의 극복을 위하여 '구소설'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4) 이러한 구소설의 우수성은 세계문학의 보편성 속에서 일반화하여 민족문학의 정체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 주고자 했다.

둘째로 '민중 중심의 문학사 인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았다.

1) 민중에 대한 개념이 변화되고 있는 측면을 볼 수 있었다. 일제 강점기에서는 '대다수의 민족인 시민계급'으로 인식하다가 광복 후에는 '계급투쟁의 전위대'로 인식하고 있다.

2) 이러한 민중에 대한 인식은 일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민족의 독립운동 전개와 관련된 지도 원리와 방법을 바탕으로 인식하고 있다.

3) 또, 민중에 대한 인식은 '문자·평민·여성·시대'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봉건 타도 등 비판적 사실주의에 입각한 작품에 많이 다루고 있다.

4) 결국 이들 민중을 위한 문학은 시가가 아닌 소설이나 연극이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학사'가 아닌 '소설사'를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사회경제 사학을 바탕으로 한 문학사 인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았다.

1) 신경향파의 대두는 당시 사회 조건상으로 필연적인 것이었다는 인식이다. 즉, 노동대중의 곤궁과 사회 불안 등으로 민족의식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대두했다고 보고 있다.

2) 따라서 민족주의 문학의 방향에 일대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퇴폐적 문학을 배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기성작가들은 현실을 몰각하여 계급사회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어 '우리들의 작품이여'할 만한 작품은 하나도 없다고 하고 있다.

3) 그러므로 기성작가들이 현실을 외면하는 작품들로 말미암아 문단은 침체되고 잡문학이 번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잡문학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실정이었으므로 경향문학이 대두되어 장차 기성문단을 압도한다고 보고 있다.

4) 이러한 경향문학의 힘은 계급의식의 성장과 계급투쟁에서 찾고자 했다. 문학 전선을 비롯한 여러 방법에서의 계급투쟁만이 민족을 수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김태준의 『조선소설사』를 살펴보았다. 위에서 편 이상 나누어 살펴본 내용들은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이라기 보다, 일제 식민사관에 대응하여 민족운동의 지도 원리와 방법에 입각한 애국·계몽 사관으로 통일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부족한 부분은 「김태준의 문학사 구성 방법 연구」— 김태준의 문학사 서술 방법 연구(2) — 를 통해서 「근·현대 기점에 관한 구성」, 「전통의 계승·발전을 중시하는 구성」, 「사회적 영향관계를 중시하는 구성」, 그리고 「『조선소설사』의 문학사 서술상의 한계점」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문헌

- 김태준, 「문학 유산의 정당한 계승방법」(1946)
_____, 「문학혁명 후의 중국문예관」
_____, 「민주주의와 문화」, 『민주주의 12강』(1946)
_____, 『조선소설사』(1933)
_____, 『조선한문학사』(1931)
_____, 『증보 조선소설사』(1939)
강만길,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창작과 비평사, 1879.
김병택, 『한국초기근대시론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_____, 『한국현대시인론』, 국학자료원, 1995.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한얼문고, 1973.
_____, 『해방공간의 문학사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누시노프, 세이트런, 『사회주의 문학론』, 과학과 사상, 1990.
문성숙, 『개화기소설론연구』, 새문사, 1994.
박철희·김시태 편, 『문예비평론』, 문학과 비평사, 1988.
박희병, 「천태산인의 국문학연구」, 민족문학사연구소 편, 『민족문학사연구』3~4호, 1993.
신형기 편, 『해방3년의 비평문학』, 도서출판 세계, 1988.
유진원 외, 『마르크스주의』(김병익 외 옮김), 고려원, 1991.
이만열, 『한국근대 역사학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89.
임성운, 「문학사 기술 방법론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0.
임영태, 「혁명적 지식인」, 『사회와 사상』, 1988. 9.
정종진, 『문학사 방법론』, 청주대학교출판부, 1989.
조선문학가동맹 편, 『건설기의 조선문학』, 온누리, 1988.
차하순 편, 『사관이란 무엇인가』, 청람, 1980.
홍기삼, 『문학사의 기술과 이해』, 평민사, 1978.